

충남도, 1조 규모 외자유치...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낸다

싱가포르 뷔나그룹 MOU 체결
태안 등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연간 1.67TWh 청정 전력 생산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충청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여대급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외자유치와 도내 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6일 싱가포르 스워스텔 더 스태프드에서 니틴 압테 뷔나그룹 대표, 정광진 한국 대표, 가세로 태안군수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뷔나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개발·투자·운영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일본·호주·인도 등에서 총 19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한국시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지난 6일 싱가포르 스워스텔 더 스태프드에서 니틴 압테 뷔나그룹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청남도

장에 진출했다.

협약에 따라 뷔나그룹은 2030년까지 태안을 비롯한 충남 일대에 총 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1.67테라와트시(TWh) 이상의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연간 74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 실

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뷔나그룹은 데이터센터 개발 전담 회사 '뷔나네스'를 통해 그린에너지와 디지털센터를 결합한 확장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은

불명예스럽게도 탄소배출량 전국 1위 지역"이라며 "도지사 취임 이후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산업 도시로, 탄소중립 대전환 과정에서 뷔나그룹의 기술과 경험이 충남의 해상풍력 자원과 결합하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핵심 인프라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해상풍력법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적·행정적으로 뷔나그룹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니틴 압테 대표는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할 것"이라며 "충남도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목포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24일까지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00만원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사업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균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창원시, 산불 대응역량 강화

창원시가 봄철 대형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산불 예방부터 진화, 주민 대피,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주요 추진 내용은 ▲산 연접 취락시설 감시 활동 강화 ▲상황별 비상근무체계 강화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 대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확충 ▲소각산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초기 대응 및 통합지휘체계 구축 등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북도, 제조업 디자인 경쟁력 확보

기업 수요에 맞춘 체계적 디자인 지원
4년간 880건 과제... 매출증대 등 성과

경북도 제조업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높이며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기업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딩·마케팅·뉴미디어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까지 연계한 종합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디자인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제품 디자인과 브랜딩,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0건의 과제가 추진됐으며,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있다.

특히 2025년 수혜 기업 성과 조사 결과 참여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업인 '신시장 창출형 윈스톱 지원사업'은 기술 중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단순한 외형 요소가 아닌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요소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디자인은 중소기업 기술에 가치를 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북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경남도, 중소·수출기업 2800억 지원

유관기관과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
유가·환율 등 글로벌 정세 선제 대응

경남도가 이란 사태로 촉발된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금융 시장 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김명주 경제부지사 주재로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경남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남지원본부, 수출입은행 경남본부,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본부 등 주요 경제·금융·수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과 환율 변동, 수출입 물류 및 금융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도내 기업과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



경남도는 지난 6일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

했다.

도는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수출 기업에 28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남도 물가 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물가 모니터 요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요금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신규 기업창업 증가... 비수도권 1위

지난해 1.1만개... 전년 대비 4.6% ↑

전국적인 창업 감소세 속에서도 경남도의 신규 기술 창업이 오히려 늘며 비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창업 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경남의 신규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는 1만 1357개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순위로는 4위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경남의 신규 기술 기반 창업은 전년 대비 4.6%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2.8%를 크게 웃돌았다. AI·디지털 기술 보급에 따른 경영 컨설팅 창업 증가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성화로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창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남의 기술 창업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도내 전체 창업 가운데 기술 창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16.4%, 2023·2024년 17.5%에서 2025년 19.42%로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연간 약 1만 1000건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두순 경남도 창업지원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남이 비수도권 기술 창업 1위를 달성했다"며 "창업 거점 조성 등 신규 기술 기반 조성·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UNIST "초미세먼지, 뇌 건강 악영향"

초미세먼지 신경독성 기전 규명

초미세먼지(PM2.5)가 뇌혈관 기능을 저하시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기전 수준에서 밝혀졌다.

한국뇌연구원은 차매연구그룹 김도근 박사팀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국가독성과학연구소(KIT)와 공동으로 초미세먼지의 신경독성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뇌혈관 내피세포의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AHR)를 활성화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혈관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서 뇌로 공급되

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

뇌혈관과 성장호르몬 등 주변 세포 간 상호 작용에도 이상이 관찰됐으며 뇌의 항산화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기억과 학습의 핵심 영역인 해마(hippocampus)에서 두드러졌다. 해마는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질환과 밀접한 부위인 만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요인이 장기적으로 뇌 기능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러스 머티리얼즈(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최신호에 게재됐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개막

제7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겸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대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300명, 임원 지도자 350명, 심판 운영요원 120명, 선수 보호자 100명, 자원봉사자 40명 등 900여 명이 참가한다.

김해시장장애인육상연맹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군 대회보다 확대된 자원봉사 인력과 교통관리 및 통제인력을 배치해 선수단 안내와 이동 지원, 경기 운영 보조 등 세심한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